

전국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

한선교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

다. 즉,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제9조에 명시된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한선교 국회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서울의 경우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에 달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50%에도 못 미치는 등 격차가 심하다"면서 "특히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30%대에 불과해 보건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각종 재난이나 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보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정책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환자안전 강화... 국제 보건이슈 공동 대응

(1면서 계속)

△교부가가치의 의료제도 추진 = 의료비의 비효율과 낭비가 임상 진료 과정에서, 의료제도 운영 및 조직에서, 의료제도 행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 제공자들 간에 조정 협력해야 하고, 부정청구·납입·부패를 막아야 한다.

△의료제도를 신기술과 혁신에 조응 =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발전, 유전체학의 진전, 빅데이터 활용 등과 같은 혁신은 비용 지출을 높일 수 있다. 혁신의약품의 적정 비용에 확보하고, 보건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잠재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제도를 더 사람 중심으로 되도록 전환 = 환자의 기대 수

준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자기결정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 중심 치료'가 미래 보건의료가 취할 방향이 되어야 한다. 제공자 중심의 의료제도를 개개인의 니즈와 선호 중심의 의료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화와 국제적 협력 장려 = OECD 국가는 신기술 및 개발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제 내성 등 주요 보건이슈에서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선언문을 채택한 보건장관들은 차기 보건장관회의 때까지 관련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환자 스스로의 경험과 결과'를 측정할 통계지표 산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등의 모범사례 확산,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신기술과 혁신의약품의 효과적인 활용, 보건의료인력의 변화하는 미

대상 제시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는 '차세대 보건개혁(The Next Generation of Health Reforms)'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34개 OECD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 등이 참석해 만성질환과 다(多)질환 증가,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기술 혁신, 학생제 내성 등 전 지구적 위협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업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자진단 및 의료비 청구의 전자화, 의료 품안전사용서비스, 만성질환자의 사전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제고 등 국민 중심의 한국 보건시스템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칠레와 독일의 보건부 장관과 별도회담을 갖고 원격의료 진출, 제약·의료기기 수출, 학생제 내성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다. 프랑스와는 양국의 저출산 현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청취했다.

332만건, 2015년 475만건, 2016년 519만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적절한 현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혈액 출고 전 조화를 통해 부적절한 수혈을 예방한 건수는 지난해 총 7412건으로 부적절한 현혈 예방이 6979건, 부적절한 혈액출고 예방이 433건이었다. 이는 DUR 시스템 활용 전인 2013년 1946건에 비해 3.8배 증가한 것이다.

주혜진 기자 hjoo@

DUR 시스템, 혈액안전사고 예방 기여

DUR 시스템이 현혈금지약물 복용자의 부적절한 현혈 및 수혈을 방지해 혈액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해 2014년 4월부터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현혈금지 약물 복용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

다.

이를 통해 현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현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적절한 혈액을 출고 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혈액수급과 수혈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왔다.

현재 현혈금지 대상약품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등 8개 성분이다. 심평원이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건수는 2014년

인/사

제주도 제주시서부보건소 강맹숙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부보건소 소장에 강맹숙 제주시서부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1월 13일자.

강맹숙 소장은 1980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주시서부보건소(구 북제주군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시제주보건소 의약관리담당 및 방문간호담당, 제주시동부보



건소 예방의약담당, 제주시우도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등을 지냈다. 강맹숙 소장은 "건강증진 사업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제주도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강정혜 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소장에 강정혜 서귀포보건소 예방의약담당이 임명됐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소장을 맡게 됐다. 1월 13일자.

강정혜 소장은 1985년 제주한라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귀포시동부보건소(구 남제주군보건소)에서 공직에 입문했다. 서귀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및 건강증진담당 등을 지냈다. 강정혜 소장은 "26년간 보건소



업무를 해온 경험을 살려 '함께 가지'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강맹숙 소장, 강정혜 소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주혜진 기자 hjoo@

닥터헬기 이송환자 4000명 돌파

전국 6개 지역에 배치... 이송시간 평균 125분 단축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 닥터헬기가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하며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가 1월 13일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부터 닥터헬기 운영지역을 선정해오고 있다. 6개 운영지역은 인천(가천대 길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라스키병원), 경북(안동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이다.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운영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그 해 76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이어 2012년 320명, 2013년 485명, 2014년 950명, 2015년 941명, 2016년 1196명 등 지금까지 이송한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산악·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함으로

써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닥터헬기로 이송된 환자의 57%는 3대 중증응급환자(심장질환·뇌질환·중증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호흡곤란, 쇼크, 화상, 소화기출혈, 심한복통, 의식저하 등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들이었다.

또한 닥터헬기 도입 이후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이 148분에서 23분으로 평균 125분 단축됐다.

20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세브라스키병원의 경우 구급차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할 때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전남지역 운항헬기를 소령헬기에서 중령헬기로 교체해 목포한국병원에서 145km 떨어진 거가도를 포함해 전남지역 279개의 모든 섬 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 정유정 '종의 기원'

독자가 뽑은 '2016 올해의 한국소설' 1위



간호사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인 정유정의 장편소설 '종의 기원'이 독자들이 선정한 '2016 올해의 한국소설' 1위로 뽑혔다.

인타넷교보문고는 2016년 한 해 가장 매력적인 한국소설을 추천받아 '올해의 한국소설 10'을 선정했다. '종의 기원'은 독자가 뽑은 올해의 한국소설 1위, 서점 직원이 뽑은 올해의 한국소설 3위를 차지했다.

'종의 기원'(은행나무 출판사)은 집 안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어머니를 발견하는 사건에서 시작해, 그 누군가를 밝히면서 드러나는 진실을 이야기의 주를 이룬다. 인간 내면의 악이 어떤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잠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빠른 호흡과 거침없는 문장, 짙은 이야기 구조가 발휘하는 특유의 속도감과 흡인력은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모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 최대 규모 출판사인 펠리프스를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5개국의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맺으며 해외로 수출됐다.

정유정 작가는 한국 문단의 아마존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내는 작품마다 압도적인 서사와 폭발적인 이야기의 힘으로 베스트셀러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기독교간호대를 졸업했으며, 광주보훈병원에서 일했다.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내 심장을 쏴라'(2009년), '7년의 밤'(2011년), '28'(2013년)을 펴내며 한국 문단의 스타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첫 에세이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2014년)을 출간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게시판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회장·임용자)는 춘계학술대회를 '표현예술치료 개인상담 구조화' 주제로 3월 11일 명지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표현

예술치료, 심리상담, 심리치료, 예술교육, 코칭 등에 관심 있는 간호사면 누구나 참석 가능. '신체 부분 은유의 심리학적 배경', '표현예술치료 개인상담의 구조화 및 시연' '역전이와 투사를 병행시키는 커뮤 나티 덴스' 등의 주제강연, 표현예술치료 개인상담 조별 실습 진행. 사전등록 3월 8일까지. 참가신청 및 등록비 홈페이지(ke-ata.or.kr) 참조. 02131-5002.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2월 2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 | | | |
|------------------------------------|---------------------|--------------------------|--|
| 간호사신문 | |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 |
|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출06368 | | | |
|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 |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 | FAX (02)2260-2579 | |
| koreanurse.or.kr | |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 |
| | | nursesnews.co.kr | |
| 시·도 간호사회 | | 산 하 단 체 | |
| 서울시 (02) 853-5497 | 충청북도 (043) 272-1573 |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 |
| 부산시 (051) 253-3824 | 충청남도 (041) 509-6348 |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 |
| 대구시 (053) 756-8485 | 전라북도 (063) 256-3390 | 보건간호사회 (02) 2296-7677 | |
| 대전시 (042) 441-2925 | 전라남도 (061) 277-2292 | 보건간호사회 (02) 527-3360 | |
| 광주시 (062) 227-7561 | 경상북도 (053) 743-2721 | 마취간호사회 (010-3103-0748) | |
| 대전시 (042) 535-0739 | 경상남도 (055) 282-6006 | 보혈심간호사회 (02) 2263-1959 | |
| 울산시 (052) 258-2311 | 제주도 (064) 747-3811 | 산림간호사회 (02) 716-9030 | |
| 경기도 (031) 252-0351 | 군 진 (042) 878-4580 |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 |
| 강원도 (033) 263-6417 | |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 |
| | | 노인간호사회 (031) 750-5980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전문직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1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일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개강일 2017.2.4 **보건복지부 특강**

2017.4.8 시행 / 학원 강의 & 동영상 강의 모두 진행 / 현재접수중
보건직 / 방역직 공무원 전문카페 '진통' http://cafe.naver.com/yulim21c